

16.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갈릴레오는 당시 주류 이론인 지구 중심설을 반증하여 지구가 회전한다는 태양 중심설을 입증하고자 했다. 만약 갈릴레오의 이론대로 지구가 회전한다면, 탑에서 떨어진 돌은 뒤쳐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수직으로 떨어진다. 이는 지구가 회전한다는 코페르니쿠스의 논증을 반증하는 사례로 보인다. 이러한 탑 논증을 해결하기 위해 갈릴레오는 움직이는 배 안에서 공을 똑같이 떨어뜨렸다. 이때 똑같이 수직으로 떨어졌으므로, 이는 지구가 회전한다는 논증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 ① 고집의 원리를 따르는 입장은, 당시 과학 발전으로 인하여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의 두 이론이 공존하게 된 시대의 과학의 수준이 이미 충분히 고양된 상황이라 생각하겠군.
- ② 모든 종류의 지식과 전통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입장은, 갈릴레오의 실험은 자신의 패러다임을 증명하며, 태양 중심설을 주장하는 소수가 과학적 진보를 이룰 것이라 생각하겠군.
- ③ 과학 연구에 있어 단일한 방법론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당시 주류 이론이었던 지구 중심설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군.
- ④ 과학자들이 퍼즐 풀이를 하듯이 다양한 과학 문제를 탐구한다는 입장은, 갈릴레오의 탑 논증 해결과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경우, 기존의 이론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겠군.
- ⑤ 과학 연구에 있어 기존의 형식을 벗어난 일탈을 장려하는 입장은, 태양 중심설이 잘 확립된 사실과 어울리지 않는 배경에서 새로운 과학적 진보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겠군.

1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시험 문제가 어렵다.
- ② 책 한 권을 읽기가 어렵다.
- ③ 경기가 어려워 살림이 어렵다.
- ④ 현재 우리 기업의 시국이 어렵다.
- ⑤ 그 작가의 소설은 읽기에는 어렵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김응서와 강홍립이 ㉠일본으로 향할새, 임금이 양 장의 손을 잡고 왈,  
 ┌ “경 등은 충성을 다하여 위엄을 타국에 빛내면 어찌 아  
 [A] 답지 아니리오. 경 등은 삼가 적을 알아보지 말고 속히 성공하  
 └ 여 돌아와 군신이 서로 반기게 하라.”  
 하시니, 양 장이 수명한 후 홍립은 선봉이 되고, 응서는 후군장이 되어 정병 이만을 거느려 발행하니, 이때는 무술 시월이라. 동래 부산에 다다라 발선(發船)하러 할새, 문득 공중에서 응서를 불러 왈,  
 “장군은 잠깐 내 말을 들으라.”  
 하거늘, 응서가 놀라 돌아보니, 옷 벗고 발 벗은 사람이 완연히 공중으로 내려와 뵈거늘, 응서가 문득 왈,

“너는 어떤 사람이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대 왈,  
 “나는 조선에 의탁하여 머무는 어둑광이라 하는 귀신이라. 마침 장군의 운수를 살핀즉 ㉡행군을 서서히 하여야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고, 간데없거늘, 응서가 괴히 여겨 군을 머무르고, 홍립을 청하여 귀신의 말을 전하고 군중의 무양함을 물으니, 홍립 왈,  
 “대사에는 작은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어찌 범사한 말로 대군을 머물게 하리오.”

하고, 복을 올려 행군을 재촉하니, 또 그 귀신이 응서의 진 뒤에 서 통곡 왈,

㉢“장군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화를 당하리라.”  
 하거늘, 응서가 쟁을 쳐 군사를 머무르니, 홍립이 대로 왈,  
 “장군이 병법을 모르는도다. 문헌에 이르기를,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감히 범하지

[B] 못한다고 하니, 나는 군중 주장이요, 그대는 아장이다. 어찌 내 말을 듣지 아니리오. 만일 다시 말함이 있으면 군법으로 시행하리라.”

하니, 응서가 왈,  
 “만일 후회함이 있어도 나를 원망치 말라.”

하고, 행군하여 여러 날 만에 일본군 동선령에 다다른지라, 이때, 왜왕은 대병이 함몰함에 분노하여 다시 기병하여 설치코자 하더니, 일일은 천기를 살핀즉 조선이 기병하여 일본으로 향하거늘, 놀라 제신을 모아 의논할새, 대장 예팔도와 예팔낙을 불러 정병 삼만을 주어 왈,

“급히 나아가 동선령 좌편에 매복하였다가 도적이 모일 모시에 그곳에 오거든 일시에 내달아 치되, 만일 그때 아니 오거든 기다리지 말고 회군하라.”

한 대, 양 장이 청령하고 행군하니라.  
 이때, 홍립의 전군이 보하되,  
 “영 아래 길이 협착하여 행군하기 어렵다.”

하거늘, 홍립이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재촉하여 영을 넘더니, 문득 일성포향에 좌우 북병이 내달아 치니, 만리 장로(長路)에 곤핍한 군사가 어찌 적병의 예기를 당하리오. 홍립과 응서가 의외의 적병을 만나 미처 항오를 수습치 못하여 경각간에 수십만 군을 다 죽였는지라. 응서 등이 탄식 왈,

“이제 타국에 와 대군을 다 함몰하고 하 면목으로 고국에 돌아가 왕상을 뵈오리오.”

하며, 홍립을 책하여 왈,  
 “이는 다 장군의 허물이라.”  
 하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응서가 검술로 예팔도와 예팔낙을 베자, 왜왕은 놀라 두 사람을 청해 후하게 대접하고 자신의 누이, 공주와 혼인할 것을 권한다.

홍립이 먼저 배사(拜謝) 왈,  
 ㉣“대왕이 패군지장을 이같이 예대하시고, 또 옥낭자로 하혼(下婚)하시니 그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하니, 응서는 홍립의 허락함을 보고 마지못하여 허락하는지라. 왕은 양 장이 허락함을 듣고, 즉시 택일하여 양인이 전안성례(奠

雁成禮)하니라.

일일은 양 장이 궤하(闕下)에서 술을 먹으며 한담하더니, 응서가 왈,

“아등이 이곳에 와 대군을 다 죽이고 돌아갈 기약이 없이 이미 삼 년이라. 고국 생각을 두지 아니하니 이는 임금을 배반함이라. 장군은 어찌 하려 하느냐.”

홍립이 변색 왈,

“우리 이곳에 부귀영화가 극진하고 왜왕의 대접이 또한 간절하니, 나는 차마 돌아갈 마음이 없다.”

하거늘, 응서가 이 말을 듣고 불승분노(不勝忿怒) 왈,

“충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 하니, 대장부가 어찌 두 임금을 섬겨 후세의 꾸지람을 받고자 하느냐.”

홍립 왈,

㉔“사람의 마음 다 각각이라. 그대는 나를 다시 궤념(掛念)치 말라.”

응서가 왈,

“그러하면 그대는 알아서 하라. 나는 밤을 타 왜왕의 머리를 베어 들고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하니, 홍립이 다른 말은 아니하고 바로 들어가 응서의 말을 고 하니, 왕이 대로하여 백관을 모으고, 응서를 붙잡아와 대질 왈,

“너의 재주와 충심을 기특히 여겨 잔명을 살리고, 또한 마음을 허락하여 부마로 삼았거늘, 네 무슨 나쁨이 있으며 돌아가고자 함은 충심이어니와, 도리어 나를 해치고자 함은 이는 왕망(王莽)의 유(類)라.”

하고, 무사를 명하여,

“내어 베라.” 하니,

응서가 대매 왈,

“네 천시를 모르고 조선을 침범하였다가 지금 세궁역진(勢窮力盡)하매, 겉으로 우리를 후대하나 안으로 양양지심(怏怏之心)을 품었음을 내 어찌 모르리오. 내 이곳에 와 외로운 몸이 되어 이미 삼 년에 네 의식도 많이 허비하였거니와, 임금을 생각하며 사정을 돌아보지 아니하기로 너를 베어 임진년 원수를 갚고자 하였더니, 슬프다, 하늘이 무심하시고, ㉕또 홍립이 임금을 배반하니 신자(臣子)가 차마 못할 바라. 내 너를 베어 후인을 징비(懲愆)하고, 내 죽은 후에 혼이라도 성상께 나아가 뵈오리라.”

하고, 비수를 빼어 홍립을 베고, 양천탄식하고 칼을 들어 자기의 머리를 베어 던지니, 응서가 타던 말이 응서의 머리를 물고 순식간에 창해를 건너 용강으로 가니라.

-작자 미상, 「임진록」-

18. [A],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부탁하는 이들에 대한 근심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② [B]에서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가 드러나고 있다.
- ③ [B]에서는 제안받은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A]에서는 상대에 대하여 교만한 태도를 갖지 않기를, [B]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거절한 데에 대해서 자신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 ⑤ [A]와 [B] 모두 권위를 지닌 상대가 불의에 맞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여 미연에 부득이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1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응서와 강홍립은 왕상의 명을 받아 각각 선봉장과 후군장으로 임명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일본으로 발행하게 된다.
- ② 어득광의 말에 대해, 김응서는 회의를 갖지만, 이후 이에 대해 염려하여 김응서는 일본으로의 행군을 철회하려 한다.
- ③ 어득광의 말로 인해, 김응서는 일본으로의 행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홍립은 김응서의 의견을 일축하며, 현재의 일본으로의 행군 속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자신한다.
- ④ 동선령 좌편에서 매복한 김응서는 왜왕이 보낸 예팔도와 예팔낙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올 때 검술로 베어 죽인다.
- ⑤ 김응서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것이 충신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강홍립은 김응서에게 자신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하며, 강홍립은 일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하고자 한다.

20. ㉔~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는 훗날 행군에 대한 경고를, ㉕는 훗날 행군에 대한 조언을 김응서에게 주는 것을 현실적인 장면을 통해 드러낸다.
- ② ㉔를 통해 강홍립이 왜왕에게 가진 은혜를, ㉕를 통해 변절자를 처단한 김응서가 가진 임금에 대한 절개가 드러난다.
- ③ 강홍립이 행군에 대해 자신의 의견에 확신을 가질수록 ㉔를 통하여 드러난 염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 ④ ㉔는 후일에 복수를 할 작정인 인물의 유화적인 태도를, ㉕는 자족감으로 인하여 복수를 포기한 인물의 정서가 드러난다.
- ⑤ ㉔는 강홍립과 김응서의 부귀영화에 대한 만족감을, ㉕는 김응서의 훈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임진록」은 조선의 민중이 임진왜란으로 겪은 고통을 정신적으로 보상받고자 실질적으로 패배한 임진왜란을 승리한 전쟁으로 허구화하고, 일본에 대한 복수를 다름으로써 왜국에 대한 적개심을 씻어내고, 임진왜란의 패배로 인하여 민족적 자긍심의 상처를 입은 조선 민중들에게 통쾌함과 정신적인 위안을 주고 있다. 또한, 역사 속 실제 인물을 조금씩 변용하여 등장시키고 있다.

- ① 임금이 김응서와 강홍립을 일본에 발행하여 복수하는 데에서 당시 임진왜란으로 민족적 자긍심에 상처를 입은 조선 민중이 두 인물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보상받으려 함을 알 수 있군.
- ② 소설 속에서 역사 속 등장인물들의 활약을 통하여 당대 조선 민중이 실질적으로 패배한 임진왜란을 승리한 전쟁으로 허구화하고자 함을 알 수 있군.
- ③ 김응서가 왜왕이 보낸 적장을 모두 베고 이로 인하여 왜왕이 놀라는 데서 당시 조선 민중은 이를 통하여 왜에 대한 적개심을 씻어내고 민족적 자긍심을 보상받았음을 알 수 있군.

- ④ 김응서는 충신의 도리로써 조선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강홍립은 왜국에 남아 부귀영화를 누리하고자 하는 데서 실제 인물을 변용하여 소설에 등장시켰음을 알 수 있군.
- ⑤ 김응서가 왜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탄로나 실패한 이후, 김응서가 비수를 빼어 강홍립을 죽인 데서 당시 조선 민중은 민족적 자긍심과 통쾌함, 정신적인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인다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음직\*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그로 설위하나이다

<제1수>

왕상(王祥)\*의 이어(鯉魚) 잡고 맹종(孟宗)\*의 죽순(竹筍) 꺾어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老萊子)\*의 옷을 입고  
일생에 양지(養志) 성효(誠孝)를 증자(曾子)같이 하리다

<제2수>

만균(萬鈞)\*을 늘어 내어 길게 길게 노를 꼬아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에 가는 해를 잡아매어  
북당(北堂)에 학발쌍친(鶴髮雙親)\*을 더디 늙게 하리라

<제3수>

군봉(群鳳) 모이신 데 외가마귀 들어오니  
백옥(白玉) 쌓인 데 돌 하나 같다마는  
봉황(鳳凰)도 비조(飛鳥)와 유(類)이시니 뵈셔 논들 어떠리

<제4수>

-박인로, 「조홍시가」-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 중국 삼국 시대 때 육적이란 사람이 원술이 준 꿀(유자)을 품속에 품었다가 어머니께 드린 고사를 연상하며 말한 것임.

\*왕상: 중국 진나라 때 사람으로, 병을 앓는 계모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자 한겨울에 옷을 벗고 얼음을 깨었는데 그 얼음 구멍에서 한 쌍의 잉어가 튀어나오자 그것을 계모에게 갖다주었음.

\*맹종: 중국 오나라 때 사람으로 죽순을 즐겨 먹는 어머니를 위해 죽순이 나오지 않은 겨울에 대숲으로 가 죽순을 구해 어머니께 드렸음.

\*노래자: 중국 초나라 때 사람으로, 70세에 부모님을 위해 때때옷을 입고 재물을 퍼웠음.

\*만균: 균은 무게의 단위로, 만균은 쇳덩어리 30만 근에 해당함.

(나)

봄은 오고 또 오고 풀은 푸르고 또 푸르니  
나도 이 봄 오고 이 풀 푸르기같이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가 노모께 뵈오려뇨.

<제1수>

기러기 아니 나니 편지를 뉘 전하리  
시름이 가득하니 꿈인들 이를쓴가  
매일에 노친 얼굴이 눈에 삼삼하야라.

<제6수>

내 죄를 아옵거니 유찬(流竄)이 박벌(薄罰)이라.  
지처(至處) 성은(聖恩)을 어이 하여 감사올고  
노친(老親)도 풀터 헤시고 하 그리 마오쇼셔.

<제10수>

하늘이 높으시나 낮은 데를 들으시네  
일월이 가까우샤 하토(下土)에 비추시니  
아모라타 우리 모자지정을 살피실 제 없사오라.

<제11수>

-이담명, 「사노친곡」-

(다)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부득이 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고, 자기가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둔다.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나의 병은 내가 잘 안다. 나는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고 선(善)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르며, 맘 내키는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이 꺼림칙하여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속 밖에 멋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이미 장성하여서는 과거 공부에 빠져 돌아설 줄 몰랐고, 나이 삼십이 되어서는 지난 일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하였으나 비방은 홀로 많이 받고 있다. 아,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내가 노자의 말을 보건대,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興),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猶).”라고 하였으니, 아, 이 두 마디 말은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에듯 하므로 매우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으며, 사방의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룰까 염려한 것 때문에 매우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 않는다.

편지를 남에게 보내어 경례(經禮)의 이동(異同)을 논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었다.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은 또 그만둔다. 남을 논박하는 소(疏)를 봉(封)해 올려서 조신(朝臣)의 시비(是非)를 말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이것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어서이므로,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 그만둔다. 진귀한 옛 기물을 널리 모으려고 하였지만 이것 또한 그만둔다. 관직에 있으면서 공금을 농간하여 그 남은 것을 훔치겠는가. 이것 또한 그만둔다.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트는 것은 ㉤매우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두며, 매우 부득이한 것 일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내가 이 뜻을 얻은 지 6~7년이 되는데, 이것을 당(堂)에 편액으로 달려고 했다가, 이윽고 생각해 보고는 그만두었다. 초천(菴川)에 돌아와서야 문미(門楣)에 써서 붙이고, 아울러 이름 붙인 까닭을 적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보인다.

-정약용, 「여유당기」-